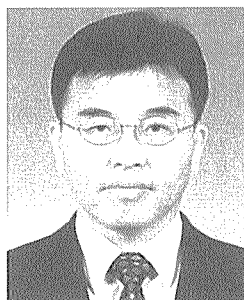


위기 재발돼선 안된다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요즈음 한국사회는 들뜬 분위기와 리더십주족, 일하기보다는 즐기기를 더 좋아하는 해이된 정서, 집단적 이기주의 등으로 위기상황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종업원을 어느 사업부서로 전근시키려 했는데 노조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국내 모 회사 경영자가 노조 저항으로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할 수 없음을 개탄하면서 한 말이다.

외환위기후 그렇게도 강조돼 왔던 노동시장 유연성이 한 때 실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선택해 인사적체 해소에 기여하고 사내 인력도 과거보다 용이하게 조정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변하고 있다. 요즘에는 외환위기 이전보다도 인력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상당수 경영자들이 호소할 정도다. 얼마전 국내 한 자동차 기업도 공장이전 및 통폐합의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회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조정하고 인원을 재배치하는 일 조차도 일일이 경영진이 노조의 동의를 얻어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일찍이 빌 게이츠는 ‘21세기는 속도의 시대이며 생각하는 속도로 경영할 수 있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볼 때 노동시장이 다시 경직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노는 날이 많아지고 근로의 강도는 뚜렷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노동시장의 유연성마저 퇴색한다면 어떻게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경제의 시계바늘이 과거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한 나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인 경상수지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외환위기후 지속됐던 흑자가 적자로 반전되기 직전에 이르렀다.

여행적자가 사상최고치로 늘어난 것은 특히 주목할 일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5년째 지속돼 왔기 때문에 지금쯤 적자로 반전되는 것이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경우 특별한 대내외 여건변화가 없는 한 흑자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3저(低) 덕택으로 86~89년 흑자를 기록했으나 90년 적자로 반전됐고, 그 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적자가 지속됐다. 적자누적은 결국 외환위기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여행은 국제적 식견을 넓히고 대외관계를 돈독히 해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골프와 보신관광으로 외국에 나가 돈을 몰쓰듯 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달 여행수지 적자가 4억달러를 넘어 외환위기전의 두배 이상에 달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저축률이 2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문제다. 국내저축으로 투자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해진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장기침체되는 가운데 시중의 넘치는 돈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 거품이 커지고 있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 생산능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있는 설비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불황수준인 70%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이 주요 업종에서 대대적인 설비증설을 하고 있고, 첨단제품에서조차도 우리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소비나 건설투자, 부동산 경기 등에 의존해 경제를 지탱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과 처방은 어떤가. 정권말 레임딕과 국정공백 등으로 정책당국이 현장과 밀착된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민생현안을 챙기기는 커녕 각종 '풍(風)'을 동원해 어떻게 상대방을 공격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정치권이 청문회와 정쟁(政爭)을 일삼으며 사회와 경제를 어지럽혔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일찍이 부즈 앨런 해밀턴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넷크래커(호두깎는 기구 사이에 낀 호두알맹이) 상황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과는 아직 격차가 벌어져 있고 중국은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한눈팔고 머뭇거리다간 우리 생존을 보장받기는 커녕 오히려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만 해도 아시아 경제 제2국으로 불리웠던 필리핀의 국력이 쇠락하고, 중남미 국가가 위기를 반복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경제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 대오각성할 때다.